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Cambridge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FIRST LANGUAGE KOREAN**

**0521/01**

Paper 1 Reading

**May/June 2016**

INSERT

**2 hours**



**READ THESE INSTRUCTIONS FIRST**

This Insert contains the reading passages for use with the Question Paper.

You may annotate this Insert and use the blank spaces for planning. This Insert is **not** assessed by the Examiner.

먼저 다음 설명을 잘 읽으십시오.

이 첨부 시험지에 읽기시험 문제 관련 지문이 있습니다.

이 첨부 시험지 공란에 연습 답안을 써도 됩니다. 이 시험지에 쓴 연습 답안은 채점되지 않습니다.

This document consists of **5** printed pages and **3** blank pages.

Text A 를 읽고 문제지에 있는 1 번 문제에 모두 답하십시오.

### Text A

아랫글은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 중 일부입니다. 어느 날 잃어버린 엄마를 찾는 과정에서 인물들이 엄마를 추억하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오빠 집에 모여 있던 너의 가족들은 궁리 끝에 전단지를 만들어 엄마를 잃어버린 장소 근처에 돌리기로 했다. 일단 전단지 초안을 짜보기로 했다. 옛날 방식이다.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남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몇가지 되지 않았다. 실종신고를 내는 것, 주변을 뒤지는 것, 아무나 붙잡고 이런 사람 보았느냐 묻는 것,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남동생이 인터넷에 엄마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와 잃어버린 장소와 엄마의 사진을 올리고 비슷한 분을 보게 되면 연락해 달라고 게시하는 것. 엄마가 갈 만한 곳이라도 찾아다니고 싶었으나 이 도시에서 엄마 혼자 갈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었다. 글을 쓰는 사람이니 문안 작성은 네가 해라, 오빠가 너를 지명했다. 글을 쓰는 사람. 너는 해서는 안될 일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귀밑이 붉어졌다. 과연 네가 구사하는 어느 문장이 잃어버린 엄마를 찾는 데 도움이 될지. 5 10

1938년 7월 24일생이라고 엄마의 생년월일을 적는데 아버지가 엄마는 1936년생이라고 했다. 주민등록상에만 38년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36년생이라는 것이다. 너는 처음 듣는 얘기였다. 아버지는 그 시절엔 다 그렇게 했다고 했다. 태어나서 백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삼년 키워본 다음 호적에 올렸다는 것이다. 38이란 숫자를 36이라고 고쳐 적으려는데 오빠가 신상명세서이니 38년으로 적어야 한다고 했다. 이걸 우리가 만드는 전단지이고 여기가 동사무소나 구청도 아닌데 사실보다 등록된 것을 적어야 하나? 의문이 들었지만 너는 묵묵히 36이라 적은 숫자를 다시 38로 고쳤다. 그러면 7월 24일이라는 엄마의 생일은 제대로 된 것일까? 15 20  
생각하면서.

너의 엄마는 몇해 전부터 내 생일은 따로 챙기지 마라, 했다. 아버지의 생일이 엄마의 생일 한 달 전이었다. 예전엔 생일이나 다른 기념할 일이 생기면 너를 비롯한 도시의 식구들이 J시의 엄마 집으로 이동하곤 했다. 다 모이면 직계만 스물둘이었다. 엄마는 식구들이 모이는 왠만한 상태를 좋아했다. 식구들이 모이게 되면 며칠 전에 새 김치를 담그고, 시장에 나가 고기를 끊어오고, 치약과 칫솔들을 준비했다. 돌아갈 때 한병씩 나눠주려고 참기름을 짜고 참깨 들깨를 따로 볶아 찜었다. 가족들을 기다릴 즈음의 너의 엄마는 동네 사람들이나 시장통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 단연 활기를 띠었고 은근히 자부심이 배어나는 몸짓과 말투를 보였다. 헛간에는 엄마가 철따라 담가놓은 매실즙이며 산딸기즙이 담긴 크고작은 유리병들이 즐비했다. 도시의 식구들에게 퍼줄 황석어젯이며 멸치속젯이며 조개젯갈 들이 엄마의 향아리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양파가 좋다는 말이 들리면 양파즙을 만들어서, 겨울을 앞두고는 감초를 넣은 늪은호박즙을 짜서, 도시의 식구들에게 보냈다. 너의 엄마 집은 도시의 식구들을 위해 사시사철 뭔가 제조하는 공장과도 같았다. 장이 담가지고 청국장이 발효되고 쌀이 찜어지는. 25 30 35

언제부턴가 도시 식구들이 J시에 가는 일보다 엄마가 아버지와 함께 도시로 오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다가 아버지와 엄마의 생일도 도시의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걸로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래야 움직임이 단출하긴 했다. 급기야 엄마는 내 생일은 아버지와 함께 쇠자, 했다. 한여름이라 날도 더운 데다 이들 사이로 지내야 하는 여름 제사가 두번이나 있는데 그 틈에 언제 생일을 다 챙기겠느냐고 했다. 처음에 너의 가족들은 엄마가 그리 주장해도 그게 무슨 소리냐며 엄마가 도시에 오지 않으려 하면 몇몇이라도 시골집에 내려가 엄마 생일을 챙기곤 했다. 그러다가 아버지 생일에 엄마의 선물까지 함께 사기 시작했고 엄마 생일 당일은 슬그머니 지나가게 되었다. 식구들 숫자대로 양말 사기를 좋아하던 엄마의 장롱엔 가져가지 않은 양말들이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다.

(중략)

자식들 중 아내를 찾는 데 가장 열심인 건 큰딸이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아내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전화도 역촌동 약사를 마지막으로 끝이었다. 아들이 신문광고를 더 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경찰조차 방도는 다 취해놓았다며 누군가로부터 소식이 오길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며 손을 놓았어도 큰딸은 밤마다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니며 연고가 없이 실려온 환자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 아니다..... 뭘 일 있으면 곧바로 전화나 나오.

- 혼자 있기 그러시면 바로 올라와요, 아버지. 고모 오시라고 해서 함께 계시든가.

다시 들으니 딸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술을 마신 듯했다. 혀가 말릴 때나 나오는 소리였다.

- 술 마셨나?

- .....몇잔요.

이 첫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던 말인가. 당신은 전화를 끊으려는 딸애의 이름을 다급하게 불렀다. 딸애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네! 대답했다. 수화기를 쥔 당신 손에 땀이 났다. 당신은 다리에 힘이 빠져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날 니 엄만 서울 갈 형편이 못 되었다. 서울엘 가지를 말았어야 했는디..... 전날 머리가 아프다고 세숫대야에 얼음을 가득 넣고 그 속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누가 부르는 소리도 못 듣고..... 밤에 보니 머리를 냉동실에 넣어둔 채로 서 있더라. 열매나 아팠시든 그랬겠냐. 아침밥 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로 있던 사람이 뭘 정신으로 서울은 가야 한다고 하질 않겠냐. 니털이 기다린다고. 그리도 내가 말렸어야는디. 내가 늙어서 인자 귀도 앓아지고 판단력도 흐려졌는가비여. 그냥 마음 한켠으로는 이번 참엔 서울 가든 억지로라도 병원에 입원시켜야지 하는 생각이기도 했다..... 그러든 어쨌든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갔시든 잘 부축을 했어야 하는 것인디..... 내가 니 에미를 환자 취급을 안하고는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내 혼자 걸음으로 앞질러 걸었다..... 평생 그리 살다보니 기냥 그 버릇이 나온거여. 일이 이리된 것이여.

자식들을 앞에 두고는 여태 하지 못한 말들이 당신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수화기 저편에서 딸애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 아버지.....

당신을 부르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만 있다.

Text B 를 읽고 문제지에 있는 2 번 문제에 답하십시오.

### Text B

다음은 조창인의 소설 <가시고기> 중 일부입니다. 아버지는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가시고기는 이상한 물고기입니다. 엄마 가시고기는 알들을 낳은 후엔 어디론가 달아나 버려요. 알들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그럼 아빠 가시고기가 혼자 남아서 알들을 돌보죠.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답니다.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알들을 보호해요. 알들이 깨어나고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리고 새끼 가시고기들은 아빠 가시고기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가버리죠. 새끼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홀로 남은 아빠 가시고기는 돌 틈에 머리를 처박고 죽어버려요.

아빠 가시고기는 왜 죽어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가 책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가시고기는 언제나 아빠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시고기가 있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슬픔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라요.

아, 가시고기 우리 아빠!

아빠는 힘든 건 다 지나갔다고 말했어요. 감기때문에 입원한 거고, 감기만 나오면 사락골로 돌아간다고 했죠. 그렇지만 설마 감기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했겠어요?

내가 말할 수 있다면 당장 물어봤을 겁니다. 백혈병은요?

(중략)

그는 가로등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꼴꼴이 세운 자세로 아이를 기다렸다. 아내와 통화한 뒤에 민 과장을 만났다. 모르핀을 맞기 위해서였다. 아이와의 마지막 순간마저 고통으로 신음하며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모르핀으로 병든 몸을 가리진 못하리라. 하지만 숨이 턱턱 막혀 하고픈 말조차 못한 채 허망하게 아이를 떠나보낼 수는 없었다.

한없이 더딘 시간이 흘러가기를 고대했건만 시간은 계곡을 내려가는 거센 물살처럼 그를 휩쓸고 지나갔다. 한낮의 태양이 맥없이 사라지는 것과, 황혼에 붉게 물든 서편 하늘과, 점령군처럼 쉽사리 몰려드는 어두움을 억울해하며, 그는 소아병동으로 이어진 오솔길을 애오라지 바라보았다.

오후 한때 바람이 난폭하게 불었던 듯도 했다. 저물 무렵 등나무의 성근 가지에 몇 마리 새들이 날아와 수선을 떨며 날갯짓을 파닥였는지도 모른다. 또 누군가는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 어스름의 하늘을 향해 푸우푸우 담배 연기를 뿜어대다 허적허적 멀어져간 듯도 했다.

소아병동을 돌아나오는 그림자 셋이 보였다. 둘은 멈춰섰고, 하나는 계속 움직였다.

아, 아이였다. 아이가 잔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사무치도록 그리운 아이건만, 그는 일어서지 않았다. 매일 밤 꿈속에서 목이 쉬도록 불러본 아이의 이름이었다. 두 팔을 벌려 열싸안던 기억에 한숨짓고 눈물 흘리던 그였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부르지도 손을 내밀지도 않았다. 그래, 너로구나, 내 아들이구나..... 그렇게 낮게 되뇌었을 뿐이었다.

“아빠!”

애타게 듣고 싶었던 아이의 목소리였다. 아빠, 그렇게 단 한 번만이라도 불리워지길 얼마나

소원했던가.

아이는 이제 거의 달려오고 있었다. 냉큼 두 팔을 벌려 품에 안고 불을 부벼야 마땅한 아이였지만, 그러나 그는 미리 걱정해둔 거리에서 냉정하게 말했다.

“거기 서라.” 아이가 엉거주춤 멈춰섰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는 잘 지내고 있다.”

“.....불빛 때문에 아빠가 잘 안보여요. 아빠 옆에 앉아도 돼요?”

“안된다. 그냥 거기 있어라.”

아이가 한 발짝 내딛던 발을 뒤로 슬그머니 거둬들였다.

“.....나는요, 오늘 밤에 프랑스로 떠나야 한대요.”

“알고 있다.”

“비행기를 탈거예요. 아빠도 알잖아요, 내가 미끄럼틀에도 못 올라가는 겁쟁이란 걸요.”

가고 싶지 않다고, 가지 않으면 안되냐고, 꼭 가야 하느냐고 아이는 묻지 않았다. 대신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그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 모두를 호소하고 있었다.

“.....아빠를 만나게 해달라고 떼를 썼어요.”

“엄마가 많이 속상했을거다. 프랑스에 가서는 그러지 마라.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니 다음이 알아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라.”

“.....프랑스에 도착해서 아빠 핸드폰으로 전화해도 되죠?”

“안된다.”

“편지는요? 편지는 써도 되죠?”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아이의 눈에선 기어코 뚝뚝 눈물이 떨어졌다. 아이는 눈물을 감추려는 양 고개를 숙여 발치께를 쳐다보고 있었다.

(중략)

그러나 최후의 모진 말을 남기고 만 그였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얼마나 아이를 위하는 일이라고.

“아빠는 널 잊을거다. 그러니 너도 아빠를 잊어버려라. 아예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어서 가라. 절대로 돌아보지 말아라. 그냥 씩씩하게 엄마한테 달려가기만 해라.”

아이는 영영 소리내어 울었다. 울고 또 울면서, 아이는 조금씩 그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는 알고 있었다. 끝이었고, 그러므로 아이가 한 번쯤 돌아보아도 된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는 또 알고 있었다. 오랜 갈망과 안타까움과 애착의 띠를 이젠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보지 않았다.

아이가 소아병동을 돌아 완전히 사라진 다음, 그때까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꼴꼴이 세워두었던 자세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벤치 위를 영금영금 기어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는 조각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잘 가라, 아들이.

잘 가라, 나의 아들이.

이젠 영영 너를 볼 날이 없겠지. 너의 목소리를 들을 길이 없겠지. 너의 따뜻한 손을 어루만질 수 없겠지. 다시는 너를 가슴 가득 안아볼 수 없겠지.

하지만 아들이, 아아, 나의 전부인 아들이.

아빠는 죽어도, 아주 죽는 게 아니란다.

세상에 널 남겨놓은 한 아빠는 네 속에 살아있는 거란다.





**BLANK PAGE**

---

Permission to reproduce items where third-party owned material protected by copyright is included has been sought and cleared where possible.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by the publisher (UCLES) to trace copyright holders, but if any items requiring clearance have unwittingly been included, the publisher will be pleased to make amends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To avoid the issue of disclosure of answer-related information to candidates, all copyright acknowledgements are reproduced online in the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Copyright Acknowledgements Booklet. This is produced for each series of examinations and is freely available to download at [www.cie.org.uk](http://www.cie.org.uk) after the live examination series.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s part of the Cambridge Assessment Group. Cambridge Assessment is the brand name of 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 (UCLES), which is itself a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